

한국 원전 도입 검토 중인 체코와 원자력산업 협력 강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체코전력산업계연합, 원전산업 교류 위한 MOU 체결



MOU에 서명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강재열 부회장과 체코전력산업계연합(CPIA) Peter Bodnar 회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좌)과 Jiri Havlic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우)이 배석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12월 1일 체코전력산업계연합(Czech Power Industry Alliance(CPIA))과 체코 산업통상부 청사(프라하 소재)에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리 히블리체크(Jiri Havlic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부회장과 피터 보드나(Peter Bodnar) 체코전력산업계연합 회장이 서명함으로써 체결되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한국·체코 양국간 원자력산업 분야 정보 교류, 공동 기술 연구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양국 기관과 시설 활용, 원자력 국민 수용성 증진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양국 원자력산업계간 교류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체코가 한국 원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민간 차원의 원자력산업 분야 협력 증진을 통해 제2의 원전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코전력산업계연합은 체코 유일의 원자력산업 관장 협회로, 체코 최대의 국영 발전기자재 제작사인 Skoda Praha(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를 주축으로 2015년에 발족되었으며 체코의 원자력산업 분야 주요 기업 13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단체회원사 실무자 간담회 개최

서울·고리원자력본부 방문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단체회원사 실무자 간 유대 강화 및 업무 협력 활성화,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단체회원사 실무자 간담회를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 간 개최하였다.



2017 단체회원사 실무자 간담회가 새울 고리 원자력본부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18개 회원사 25명의 실무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와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신고리 4호기 원자력발전소 및 5, 6호기 건설 현장, 고리 원자력홍보관 등을 둘러보았고, 이후 2018년도 한국원산 사업 소개 및 실무자 의견 수렴의 시간을 통해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국제협력 자문위원단 2차 회의 개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공동 활용 방안 논의



한국원산 국제협력 자문위원단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12월 1일 지난 9월 발족한 「한국원산 국제협력 자문위원단」 2차 회의를 열고 한국원산의 '2017년 4분기 국제 협력 주요 업무 실적'과 '2018년 상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또한 참여 기관의 관련 실적과 계획을 청취하고 회원사 간 협력 방안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 공동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